

## 숲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차가운 기운이 청량감을 더해주는 11월의 숲에선 후각이 그 어느 때보다 예민해야 한다. 흙도 그냥 흙냄새만 묻어나지 않는다. 흙과 낙엽과 물과 생명체들이 공존하는 우주의 냄새가 한 해 아니 어쩌면 숲이 태어난 태고적 향기를 그대로 간직한 채, 온 가슴을 열고 뿜어 내기 때문이다. 낙엽송의 갈색 잎들만이 남아 가을의 끝자락을 잡고 아쉬운 작별을 하고 있는 11월의 숲체원에서 코로 또, 온 몸으로 이 숲의 향기를 맡으면서 숲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 '2007 그린레인저 산림학교'의 7기 교육현장을 찾아가 봤다.

### 숲과 함께 크는 아이들

미래의 숲을 가꾸고 지킬 청소년 숲지킴이 푸른숲선도원들에게 산림체험 교육을 통하여 산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산림사랑정신을 함양하고자 사단법인 한그루녹색회에서 개최한 '2007 푸른숲선도원 산림학교'는 전국의 초·중·고 푸른숲선도원들을 대상으로 산림청과 녹색문화재단 그리고 유한킴벌리가 후원하여 청소년 녹색교육센터인 '숲체원'에서 푸른숲선도원들의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산림사랑정신을 실천하는 청소년 리더를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여 동안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그리고 금요일과 토요일 각각 1박 2일 동안 1기부터 8기까지 모두 8차가 진행되었다.

"뭘랄까... 이런 거창한 목적과 이유까진 모르더라도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숲과 감화가 되는 듯한 느낌은 정말 많이 들어요."

'2007년 그린레인저 산림학교' 진행을 맡아 그동안 많은 아이들을 지켜와 왔던 한그루녹색회의 이미숙 간사는 비록 1박 2일의 짧은 일정이지만 그 짧은 시간동안에도 숲에서 아이들은 변한다고 말한다. "프로그램이 정말 알차네요. 자연 속에서 체력단련과 협동심도 기르고... 그냥 이렇게 자연 속에 나온 것만으로도 즐겁지 않습니까? 호호호."

이번 7기 교육을 받기 위해 경북 영천에서 6학년 학생 전원을 이끌고 온 신녕초등학교의 김혜자 선생님은 졸업 전, 아이들에게 뜻 깊은 선물을 해 준 것 같아 산림학교에 참가한 것이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숲을 환경적이고 생태적으로 건강하게 만드는 활동이 바로 숲가꾸기입니다. 자! 여러분, 준비 됐나요?"

"네~에!!!"

숲체원 선생님들의 힘찬 출발 신호와 함께 아이들의 산림학교 생활이 시작되었다.



## 숲은 우리의 심장

“여기 귀한 게 있네요. 우리 친구들 지금까지 겨울잠을 자는 동물과 식물만 있는 줄 알았죠? 이렇게 ‘닥새’ 처럼 여름잠을 자는 식물도 있어요.”

푸른숲선도원 친구들 말로 고고학자를 닮으신 숲해설가 선생님의 숲이야기를 들으면서 산책하는 시간은 숲을 이해하는 첫 단계로 안정맞춤이었다. 바위와 바위 사이에 아늑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죽순처럼 나온 ‘닥새’의 어린 순은 아이들에게 신기함 그 자체였다. 사약의 원료가 되었던 천남성의 열매도 보았고, 여름잠을 자고 막 깨어나 땀값같이 파릇한 조리대도 보면서 숲이 주는 이로움을 체험하는 활동이 바로 푸른숲선도원 활동이라는 것을 아이들은 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숲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숲해설가 선생님이 읊으신 시도 좋았고요, 소나무 얘기, 버섯 얘기도 좋았어요. 가지치기 체험은 조금 힘들었지만 그래서 더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자연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야 한다고 말한 유경이(신녕초6)와 오늘은 내 삶의 아주 소중한 경험을 했다고 쓴 지호(신녕초6). 나무가 말을 해 주었다는 그림을 그린 하연이(수락초4)와 숲은 우리의 엄마 같다고 쓴 성희(수락초4), 그리고 청태산의 숲을 보며 자신이 지구의 일부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지훈이(수락초6)와 숲은 우리의 심장 같다고 한 랑호(수락초4)까지 숲이 주인인 그곳, 숲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곳, 그곳 ‘숲체원’에서 아이들은 성큼 숲만큼, 숲과 함께 크고 있었다. “와!!! 난 다 ‘매우 그렇다’야.”

통제 없이 스스로 자유롭게 뛰어다니면서 방향 판단력과 탐지력 그리고 체력과 우정까지 기르면서 자연에 대해 알고 자연과 친해지는 에코엔티어링까지 마치고 설문지를 작성하면서 아이들은 산림학교에서의 1박 2일을 가슴 벅차게 마무리했다.

(글·사진/고선희(푸른숲선도원 전문기자))



4  
기



5  
기



6  
기



7  
기



8  
기



## 자연, 희망, 협동, 동심의 어우러짐

2007년 10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총 8회에 걸쳐 산림학교가 진행되었습니다.

숲 속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푸른숲선도원들의 마음이 하나하나 너무나도 예뻐 보였습니다. 환하게 빛나던 밤하늘의 별처럼, 산림학교에 참가한 모든 학생들의 마음속에 숲속의 희망찬 정취가 곱게 새겨지기를 기대하면서 산림학교에서 진행했던 주요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 협동하여 임무 수행하기 - 오리엔티어링



지도를 보면서 나침반을 이용해 각 포스트를 찾아가 점수도 획득하고, 정해진 미션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주체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통하여 자연에 좀더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

### 숲에서 만나는 '나' - 야간 숲 체험



야간에 별을 보면서 숲길을 산책하는 프로그램이다. 숲속 휴게소에서 별을 관찰하면서 고요한 숲 속에서 조용한 명상의 시간을 갖게 된다.

### 숲과 친구되기 - 숲 이야기



숲해설가 선생님들과 함께 숲 속에서 여러가지 놀이를 하면서 자연을 알아가는 프로그램이다. 나뭇잎조각 피겨즐, 자연의 소리 알아맞추기, 에벌레 되어보기, 나뭇잎 짝궁 찾기, 새집 만들기 등 다양한 자연놀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 숲에서 봉사하기 - 숲 가꾸기



숲가꾸기는 자연적으로 자란 숲을 인공적으로 가꾸어 주는 활동이다. 교토의정서에서 탄소배출권과 관련해 산림분야의 활동으로 인정하고 있기도 한 이 활동은 대상에 따라 풀뽑기, 솎아베기, 가지치기 등의 숲가꾸기 활동으로 진행된다. 숲 가꾸기 후 활동부산물로는 바이오톱(생물들의 서식공간)을 만들어준다.

### 나무와 꽃으로 작품 만들기 - 목공예 / 꽃누르미



자연물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공작물을 만드는 프로그램이다. 나무목걸이 만들기, 솎대 만들기 등 다양한 나무공작 프로그램이 있다. 꽃 누르미는 야생화의 꽃과 잎, 줄기 등을 채집하여 약품처리된 후, 누르고 건조시킨 재료를 사용한다. 건조시킨 다양한 야생화를 가지고 꽃 우편엽서 만들기, 압화액자 꾸미기, 열쇠고리 만들기 등을 할 수 있다.

(글·사진 협조/송재호(숲체원 대리))